



OC목사회 주최 제1회 광복절 경축찬양제



남가주중부교협 주최 제21회 광복절 기념 콘서트

“광복의 기쁨 찬양으로 노래하자”

OC목사회, 남가주중부교협 광복절 기념 음악회

남가주 지역 교계 단체들이 8.15 광복절을 기념하며 경축 행사를 했다. 먼저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회장 남상국 목사)가 지난 8월 11일(토) 오후 4시 경축찬양제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 음악회에서는 한국 아무르연주단이 색소폰 연주, 아리랑합창단,

실비치남성중창단, 은혜한인교회 찬양대, 위트컴합창단, 레위남성중창단 등이 찬양했다. 찬양 중간 순서에 서대문 형무소, 8.15 광복절의 의미 등 광복절 관련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한 OC목사회 측은 “일본의 극악한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적 기쁨을 안겨주

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날마다 불안해져 가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운동을 새롭게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찬양제 전 예배에서는 목사회 부회장 김근수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조현영 목사(OC교협 부회장

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부회장 이용훈 목사가 광고, 회장 남상국 목사가 환영사, 자문위원장 문현봉 목사가 축도했다.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차권희 목사)는 8월 12일(주일) 오후 5시 광복절 기념 연례 콘서트를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에서 개최했다. 중부교협은 매년 광복절에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제 21회를 맞이했다.

콘서트 중 선우권 목사(한국 세종 은누리교회)가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했고 웨이크시티, 갯스이미지, 포이에마여성합창단, 세리토스선교교회 연합찬양대, 오렌지선교합창단, 미주청소녀예술단, 이정화 박수정 이지원의 가야금 첼로 피아노 삼중주 등의 공연이 있었다.

이 행사에서는 캘리그래피 작가인 이은희 씨가 공연 및 간증하는 순서도 있었다. 이 씨는 장애인이지만 예술가로, 칼럼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2018년 평화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 성화 봉송 등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웹비 권 기자

충현선교교회 창립 33주년 맞이해

LA의 대표적 한인교회인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가 지난 12일 창립 33주년을 맞이했다.

이 교회는 1985년 8월 11일 교회 설립과 동시에 선교위원회를 조직해 해외 선교를 시작했으며 현재 29개 국에 73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 국에 34명 선교사를 협력, 지원하고 있다. 또 이 선교사들을 위한 수양관을 글렌데일에 마련하고 선교사들의 미국 방문시 휴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종기 목사는 “예수님은 33년 지상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사역을 완벽히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승천하셨다. 우리 교회도 33년의 역사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았다”면서 “33년의 역사에 걸쳐서 선교교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민 목사는 “우리는 바야흐로 차세대를 위하여 투자하여야 할 결정적인 때를 앞두고 있다”면서 “자녀들을 위해 좋은 교육기관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교회는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장석교회 이용남 원로목사를 초청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란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하고 12일에는 주일예배를 기념예배와 겸해 드렸다.



충현선교교회가 지난 12일 주일에 창립 33주년을 맞이했다. ©충현선교교회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신입회원 환영회 및 시문학 특강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강사** :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시집 : 온 세상에 그대 얼굴이 숨어 있다, 불청객, 그리움 한 아름 안고
 수필집 : 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와 다수 언론지에 고정 칼럼 기고
 현)기독교일보 행복칼럼, 침례신문 문학칼럼
- **제목** : 시인의 눈으로 살펴본 시편 23편
-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로텍스 호텔(Rotex Hote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회장 : 정지윤 T.(213)249-0771
부회장 : 김상분, 허철
사무국장 : 조애영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감정을 잘 조절하고 싶다면, 통제하려 들지 마라

길을 걷다 활짝 핀 꽃을 보고 멈춰 선 적이 있는가? 가슴 떨리는 설렘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가?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촉촉한 감성에 젖어 본 적이 있는가? 우연히 발견한 옛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 적이 있는가? 어느샌가 꽃을 보며 짓던 미소도, 가슴 떨리는 설렘도, 하늘을 볼 여유도, 추억에 잠긴지도 오래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관스레 서글퍼진다.



장 지 은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며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수용하기보다, 통제할 대상으로 여길수록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진다. 감정적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감정은 결국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고자 하며, 결국 감정 흐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가 빨라지고, 불면증, 우울증, 폭식증과 같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완벽을 추구하며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에 부합하고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한 채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흐르지 않는 강은 물이 고여 결국 썩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의 균형이 깨질수록 조급씩 끓기 시작해 결국 문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흔히 정서는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뇌에서 감정은 강하고 그 처리 속도 또한 빠르다. 또한, 감정의 정보 없이는 이성 또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군다나 감정적으로 기억된 것은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지속시간이 길지 않다. 시편 기자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첫 시작은 격하게 요동치는 감정들

로 시작하지만, 점차 찬양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소망과 평안을 얻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상황에 깊은 통찰을 주는 좋은 단서로 사용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성이 있어도 성벽이 없는 무방비 상태와 같을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자기감정 조절 능력은 중요하다. 감정은 인생의 모닥불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 불길이 거세어지면 마음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듯이 감정엔 조절이 필요하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들지 마라.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통제하려 할수록 감정은 더 깊이 숨어 끓고 병들어 마침내 터지고 말 것이다. 무엇인가를 조절하려면 그것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여유가 생길 것이다.

나아가 그 감정을 통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그 감정이 주는 단서를 통해 자신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올림픽 성서대학 졸업식 모습

올림픽 성서대학 중국 선교 성료 교회 순회와 교육 선교 감당

지난 8월 3일 올림픽 성서대학(학장 객관섭 목사) 선교팀은 약 3주간의 중국 선교 활동을 마쳤다. 금번 선교팀의 선교 활동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현장 교회를 방문하는 사역이었다. 중국 현지에는 67개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역별 연합 집회를 갖는 일이었다. 현지 상황이 선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한 사역이다.

두 번째 사역은 성서대학을 통한 현지 지도자 교육이었다. 올림픽 성서대학에서 세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하여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했다. 우선 신학생을 양성하는 신학과에서는 목회서신, 요한서신, 바울서신, 조직신학(성령론)을 강의했다. 또,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개설한 목회과에서는 조직신학(교회론), 설교학, 레위기 강의를 했는데, 이 과정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목사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교회 음악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음악과에서는 음악통론, 화성학, 성악, 합창지도 및 각종 악기(피아노, 기타, 드럼 등)의 연주법을

강의했다. 한편, 올림픽 성서대학에서는 15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현재까지 200여 명의 중국 현지인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이 세운 교회가 중국 전역에 67개나 되는데 건 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여건과 형편에 맞게 현지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졸업생과 졸업생들이 세운 교회들은 예언교회를 비롯한 미국의 한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이 지속인 관심과 후원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객관섭 목사는 소감과 메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선교적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가 선교 이벤트는 오히려 현지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중국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살인적인 더위와 함께한 고된 선교여행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또 겨울 중국 선교를 준비합니다"라고 했다. 강태광 편집위원

작은 교회 섬기는 찬양예배

원하트미스트리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름다운 예배-동행" 투어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찬양 집회나 문화 행사를 열고 싶어도 인적, 물적 자원 부족과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해 열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행사다.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총 4군데 교회에서 찬양예배를 드리며 이 행사

를 유치하게 될 교회에는 전혀 부담이 없다. 찬양 인도자와 연주팀, 음향 장비와 설비를 모두 원하트에서 준비하며 심지어 이들의 식사와 물까지도 준비한다. 교회들은 은혜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원하트는 이번에 작은 교회를 섬길 투어팀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213-347-5080

이혼의 아픔, 이겨내세요

얼바인에 있는 베델한인교회에서 이혼 가정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혼 가정 회복 세미나'가 오는 8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1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개최

된다. 이혼의 상처로 아파하는 가정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망과 회복을 주는 세미나다. 주일에 교회를 방문해 부스에서 등록할 수도 있고 교회 웹사이트 www.bkc.org에서 등록할 수도 있다. 등록비는 20불.

또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간동안 열린다. 5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없다. 부모는 이혼 가정 회복 세미나, 자녀는 이혼 가정 자녀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문의) 213-407-5239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K-9 학년 Enrolling



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정기지방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정기지방회 성료

지방회장에 오병익 목사 선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미국서남지방회가 지난 8월 6일(월) 남가주벤델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제3회 정기지방회를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2016년 제14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미국 서부지역에 또 한 개의 지방회를 신설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창립됐으며 현재 15개의 교회와 선교회, 1,000여 명의 성도, 그리고

30여 명의 교역자들이 있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단이다.

특히, 이번 정기지방회에서는 교회 개혁과 멕시코 선교 지원, 연합 사역과 신학교 설립에 따른 목회자 양성 등 진지하고 중요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며, 성결의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서남지방회의 신임 임원으로는 지방회장에 오병익 목사(남가주벤델교회)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 장로 부회장에 김규진 장로(남가주벤델교회), 서기에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인야교회), 회계에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부서기에 강정운 목사(올리브라이프교회), 부회계에 양홍규 목사(굿프렌즈교회)가 각각 선출돼 한 회기를 섬기게 됐다.

문의) 213-434-1083

1,000명 다음세대 하나님 나라 비전 꿈꾼다

갯스이미지 창립 28주년 맞이해



갯스이미지가 제28회 정기공연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찬양과 문화를 통해 예수님의 (God's Image, 대표 변용진 목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크리스천 28번째 정기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 11일 라미라다 시어터에서 열린 창립 28주년 기념 콘서트는 오후 3시와 7시 2번의 공연을 통해 지



김영대 전임 원장이 지용덕 신임 원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하고 있다.

연세 아카데미 지용덕 원장 취임

“기도로 직임 감당하겠다”

연세 아카데미 원장에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가 취임했다. 지난 8월 12일(주일) 오후 6시 미주양곡교회에서 열린 원장 이취임 감사예배에서는 전임 원장인 김영대 목사가 이임하고 신임 원장인 지용덕 목사가 취임했다.

1부 예배는 부원장 고재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학술위원장 김정복 목사가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조후연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다.

2부 이취임식은 부원장 정요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김영대 목사가 이임사, 지용덕 목사가 취임사를 각각 전했다. 이어 도성환 박사(연

세동문화장), 류당열 목사(남가주 교협 중경회장), 박종대 목사(KCCD 이사장), 장광춘 목사(복음주의장로 교 총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사무총장 전지용 목사가 인사말을 전한 후, 아무르 색소폰 연주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모든 행사는 조종곤 목사(연복회장)의 축도로 끝났다.

연세 아카데미는 연세대 출신 목회자들의 목회와 신학 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결성된 단체다. 지용덕 신임 회장은 “부족한 재정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면서 겸손과 최선을 다해 직임을 감당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난 1년간 준비한 찬양과 음악, 댄스로 청중을 압도했다. 특히 오후 7시 공연은 전석이 매진이 되는 등 공연에 대한 기대가 가히 폭발적이었

다. 변용진 목사는 “28년 전 12명의 어린이들로 시작된 갯스이미지가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1,000명의 다음세대가 함께 하는 단체로 자라나 세계에서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매번 느끼지만 공연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큰 간증이다”라고 말했다.

변 목사는 “세상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순수함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이 큰 희망이다”라면서 “금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3-5살로 구성된 토들러 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킨더부터 3학년으로 구성된 주니어팀, 킨더부터 8학년으로 구성된 LA 지부팀, 4학년부터 8학년으로 구성된 LA 팀 원, 8학년부터 12학년으로 구성된 LA 팀 투 등 370여 명이 출연했다. 이들은 총 24곡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중국에서 참석한 36명의 학생들이 중국어 찬양과 댄스를 통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갯스이미지에 격려를 보냈다.

한편,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은 갯스이미지는 LA를 본부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리조나, 브리질, 캐나다, 한국, 중국 등 10여 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의) 714-519-4901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 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6〉

휘튼칼리지의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세계한인선교대회 및 선교캠프와 매우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휘튼칼리지에는 필자가 자주 방문하는 곳이 있다. 바로 Blanchard Hall이다. 이 건물 2층의 복도 한 면에 보면 이 학교 출신 장기 파송선교사들의 명단이 개교 이래 매년 이어서 적혀 있다. 미국의 선교부흥기인 188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중후반까지엔 매년 100명 안팎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도가 되면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2001년도를 끝으로 선교사 파송 기록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유심히 그 이름들을 읽어 내리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어떤 이름들 옆에 작게 십자가 표시가 붙어 있다. 그렇다. 순교자들의 표시이다. 어느 한 해의 명단에는 거의 모든 이들의 이름에 십자가 표시가 있다. 그 당시 휘튼 출신의 청년 선교사들도 이렇게 많이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나갔던 것이다.

휘튼칼리지 출신의 세계적 영적 거장들도 많다. 빌리 그레함과 루트 그레함, 존 파이퍼, 조쉬 맥도웰, 아서 흡츠,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등등, 그 중에 한 인으로서 하와이피서픽대 총장인 노봉린 목사도 있다. 당시엔 모두 20대의 청년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선교 비전을 안고 얼마나 큰 열정들을 쏟아 부었던 곳이었는가! 이 교정에서 그들은 배우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꿈을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함께 했던 청년 동역자들이 어떤 이는 순교자가 되어, 또 살아서 온 삶을 바친 이들은 세계적 영적 거성들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필자는 다시 그날의 부흥의 회복이 이 교정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로 기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세계선교의 최전방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휘튼칼리지에 어느새가 미주 한인 청년들이 속속 입학하여 학업을 연마하고 있다. 올해도 신입생 중 다수의 한인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왜인가? 대부분 그들은 선교사를 꿈꾸고 있다. 그 옛날 이 교정에서 거룩한 열정을 불태웠던 미국 선교를 주도했던 그 선배들의 거룩한 꿈을 계승하기 위하여, 선배들이 온 열방을 향해 목숨을 걸고 전진했던 것 같이 이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휘튼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개교회주의에서 탈피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선교사의 꿈을 갖는 청년들을 범교회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내 교회 청년들을 온실 속에서 나약하게 만들지 말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해 깃발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고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선교 영적 동맹에 담대하게 내보내야 한다. 교회는 세계선교 부흥을 노래해야 한다. 외쳐야 한다. 우리가 세계선교를 수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선포해야 한다.



휘튼칼리지에는 동문 선교사들의 명단이 연도별로 붙여 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너그러움과 너덕함으로 누리는 핀란드 휘바 행복

행복학의 오랜 논쟁거리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조건이 행복을 품는 마음인가? 아니면 행복을 담은 조건이나 환경인가?' 하는 해묵은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북유럽 기독교 행복 선진국의 행복문화를 살피면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과 행복을 위한 제도와 환경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핀란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핀란드의 행복은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환경의 산물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진정한 심플라이프, 휘바 핀란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핀란드인의 행복한 삶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핀란드에서 태어나 자란 저자는 핀란드 사람들의 심플한 삶이 행복비밀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성인이 된 후 일본과 미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모국인 핀란드의 삶을 비교합니다. 사회 복지 수준이 핀란드와 비슷하고, 경제적으로 핀란드보다 풍족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핀란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언급하면서 행복이 복지나 경제 수준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자랑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과 정신 문화를 소개합니다.

첫째, 핀란드 사람들은 소박합니다. 그들은 삶의 곳곳에서 소박함의 행복을 누립니다. 핀란드 행복을 살피면서 가장 쉽게 접하는 개념이 핀란드 사람들의 소박함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소박함으로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기회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박함으로 누리는 행복은 행복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매일 행복을 누리는 행복의 일상성은 최고의 행복 비결입니다.

둘째, 핀란드 사람들은 너그럽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핀란드 사람들을 관찰한 사람들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 왔습니다. 긴 겨울이 춥고 흐립니다. 그래서 발달된 것이 사우나 문화입니다. 그들은 아울러 사회 문화 제도와 이웃들에 대하여 너그럽게 순응합니다. 핀란드는 시민들이 국가 정책을 너그럽게 수용합니다. 핀란드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의 행복을 배려합니다. 핀란드인들이 높은 행복지수를 누리는 비결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행복은 물론 경쟁하는 상대의 행복도 배려하는 너그러움에 있습니다.

셋째 핀란드인은 긍정적 자세로 말미암은 유쾌함이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비교적 내성적이지만 워낙 유쾌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행복을 살피면 꼭 만나는 단어가 "휘바!"입니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매우 좋을 때 입을 세우며 외치는 "파방!"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휘바는 핀란드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휘바는 긍정적인 기쁨의 정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소박함, 너그러움, 그리고 유쾌함이 핀란드인의 행복한 삶의 바탕입니다. 필자는 오래전 국제 군인 선교단체인 ACCTS에서 핀란드인 친구 티모와 인턴을 같이 했습니다. 티모는 핀란드 육사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함께 했던 약 2년 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콜로라도주 곳곳을 누비고, 로키 산의 정상을 올랐던 추억을 공유합니다. 티모와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는 소박하고, 너그럽고 유쾌한 멋진 기독교 장교였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 세미나와 토론이 끝날 때마다 "Let Finnish finish! (핀란드 사람이 마치게 하라!)"는 저의 짓궂은 농담에 환한 미소로 응답했던 행복한 친구 티모가 그립습니다.

깨끗한 물에 복음을 담을 동역자 모집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SWIM (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이 우물파기, 정수기 제작, 야외 화장실 설치, 공중위생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 단체는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1시에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에서 정기 모임을 하고 있다.

이 선교회는 전 세계 빈곤국가를 다니며 '물'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매년 2회 훈련을 통해 이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9월 훈련에 참여하면 오는 10월 중 태국에서 진행되는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다. 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난민 지역에 들어가 정수기 제작과 공중위생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일을 함께 하는 임영호 장로는 "물의 환경만 바꾸어 주어도 수많은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훈련 참가 문의) 714-401-9789



SWIM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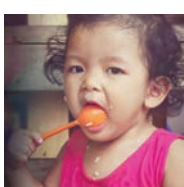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바울이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 27:21-4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갈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장사가 안 된다고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2-3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합니다(행25:21). 그래서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9-11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급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감(靈感)에 의해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제국시대로 백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길을 떠났다가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 안개와 흑암 속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더미 같은 폭풍우에 밀려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잠도 못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가슴을 졸이며 지내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행 27:18-20).

이때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행27:21-26)” 했습니다.

얼나를 쬐되는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

서 이리저리 파도에 쫓겨 다니다가 밤중 쬐되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육감으로 물을 재어보기 위해 줄에 추를 단 자같은 것을 바다에 늘어뜨리는데 이십 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길은 보통 180cm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있으니 열다섯 길이 되니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배 뒷전(고물)에다가 배를 움직이지 않게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하기 위해 뱃머리(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구명정)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이들이 여기 없으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소리치니 군사들이 거룻줄을 잘라서 그 배마저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날이 새어가니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배가 어느 곳인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어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두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힘준한 죄악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가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 배에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백칠십육 인이라고 숫자를 기록하신 이유는 많은 인원을 밝히기 위함과 떡을 나누어 먹이기 위해 숫자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를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고 날이 새어가는데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어 배를 그곳에 댈 수 있을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바람에 밀려 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양쪽에서 거친 파도가 밀어 붙이니가 배가 견딜 수 없이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에 탄 이백칠십육 명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성취시키시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100% 하나님이 하신 말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배가 섬이든 육지든 그저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

님의 목적있는 계획이 이런 섭리를 위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어 가니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미리 죽이자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제국의 법에는 군인이 죄인을 호송하다 놓치면 그 호송병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동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모든 사람이 다 육지에 올라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행 27:43-44). 그 배에 탄 선원들이나 장사꾼들, 군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양떼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라는 목자를 세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자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에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백칠십육 명이 탈 수 있을 만한 배는 아주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장사꾼들도 있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의 값어치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랑에 다 없어지더라도 중요했던 것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탄 배의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춥고 몸이 떨려 불을 지폈더니 독사가 나와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뱀을 털어내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레도 그가 죽지 않자 그것을 지켜보던 그 섬 원주민들은 바울을 사람같이 생긴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주민 추장집에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던 바울은 옛 추장의 병을 고쳐 살려주게 되고 그 마을의 병자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병들을 고침받게 됩니다. 이렇듯 목회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석 달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멜리데 섬은 모두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멜리데부터 복음화 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배가 오고 로마로 가기 위한 식량을 섬 주민들이 병고침 받고 영혼이 구원얻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넉넉히 채워 실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곳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불여준 백성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살리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살리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생과 힘겨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공동체, 훈련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제 5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예수 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자격

-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5년 이상 미국에서 Full-time으로 목회한 분
-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분
-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한 분

제출 서류

- 본교회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목회 인수 증명서, 최종 졸업 및 학위 증명서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DVD/오디오파일도 가능) 및 영어설교 1편 (Optional)
- 한글 본인 소개서 (영문 소개서 - Optional):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소명
- 3명의 추천서(추천서는 추천인이 본교회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Attn: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제출 마감

- 2018년 9월 30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 제출 방법: 이메일 (PDF로 작성) 또는 우편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허리통증 해결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여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목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르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극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서,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종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청교도리더십캠프 참가자들

미주성결 교역자회 청교도리더십캠프

차세대들에게 장학금도 수여

미주성결교단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신기 목사)가 청교도들의 흔적을 따라 미국 동부를 방문하는 청교도리더십캠프를 교역자 가족수련회와 겸해 열었다. 이 캠프에는 약 40명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참가했으며 플리머스, 보스턴, 노스햄튼, 노스필드, 피바디, 세일럼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명문대학, 유명인의 생가,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버스에서는 미국 역사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캠프를 마치며 교역자회는 청소년들에게 리더십비전훈련상과 장학금, 선교장학후원상 등을 수여했다. 한편, 이번 캠프의 모든 비용은 후원으로 충당됐다. 한국과 미국의 성결교회들과 개인들이 차세대 리더십 개발을 위해 비용을 후원했다. 교역자회는 1차 캠프에 이어 2차 캠프를 오는 8월 중순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예배 및 보수교육에 참여한 한의사들

미주기독한의사협 정기예배 드려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12일(주일) 오후 4시부터 9시 반까지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소망교회에서 8월 정기예배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한의진단학회 오정국 회장이 "장부허실을 알기 위한 맥진법"을 주제로 무료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 협회는 매월 2번째 주에 정기예배와 보수교육을 한다. 문의) 213-500-6393, 703-8541



이번 예배에 참석한 이들

기독교인들이 광복절 기념 예배

지난 11일 엘에이 영생교회에서 '광복절 73주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국 예비역 기독교인회 남가주 지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안신기 목사가 사회를 맡고, 차기하 목사가 기도, 최청학 장로가 헌금기도를 했다.

김기동 목사가 설교하고 교도소에서 선교하는 박상구 목사가 간증을 전했다. 광고는 김희창 목사, 특강 사회는 강태광 목사가 맡았다. 남가주목사회장 샘신 목사가 축도한 후, 애국가를 제창했으며 백지영 목사가 식사 기도를 했다.

코너스톤교회에서 박담희 목사 세미나

코너스톤교회(담임목사 이종용)에서 박담희 목사를 강사로 18일 토요일 오전 9시, 19일 주일 오후 3시 40분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의 내용은 1. How we got here?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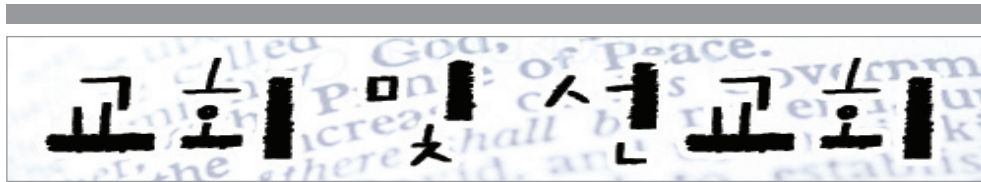
박담희 목사

들 알아보기 2. What has happened? 사건들 알아보기 3. Where are we going? 내일 미리 보기 4. How shall we live? 살아갈 길을 찾아서 등이다. 이 강의에서 박담희 목사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 21세기에 신앙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하게 된다. 박담희 목사는 서울 온누리교회, 서울 새로운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현재 코너스톤교회 협동목사다.

소망교육세미나 토렌스장로교회에서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 운동을 확산하는 소망교육세미나가 오는 8월 19일(주일) 오전 11시 30분에 토렌스제일장로교회(188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엘리카페에

서 소망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포함한 죽음 준비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562-977-4580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0 Email: lasehil@21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운 믿음이 함께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금식회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2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이룸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주일3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별리채목 Valley Chapel MP제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onald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983-5887 Tel: (232)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박종호 장로는 암 극복의 과정을 전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다.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박종호 장로, 뉴욕어린이양교회 ‘초심’ 찬양집회

간암 극복 후 제2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테니이자 찬양사역자인 박종호 장로가 뉴욕을 찾았다. 박종호 장로는 5일 오후 2시 30분 뉴욕어린이양교회(담임 박운선 목사)에서 ‘초심’ 찬양집회를 열고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과 새롭게 노래할 수 있게 된 과정에 대해 간증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히 붙들 것을 강조했다.

박종호 장로는 이날 뉴욕어린이양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콘서트를 시작했다. 박종호 장로는 “55세까지 건강을 자부해 왔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경화에 암조각 9개가 간에서 발견됐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며 “너무도 억울했고 스스로 간을 꺼내 암조각을 다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심정을 전했다.

또 박종호 장로는 “저와 가까운 목회자 중에는 제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차마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했다는 분도 있었다. 그만큼 제 상태는 상식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늘 새벽으로는 잠을 못 이뤘고 너무도 살고 싶었고 억울했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종호 장로의 암 투병 소식에 그의 많은 한국의 동료들이 기도했고 어떤 교회는 전체 성도들이 박종호 장로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 등 많은 기도의 손길이 있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해 줬다. 박종호 장로는 “저는 자식을 위해 죽기는커녕 딸의 간을 뜯어 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 대회에서 우승한 시애틀 목사회팀

교단 교과 초월해 교류의 폭 넓혀 시애틀 목사회, 서북미 목회자 체육 대회 우승

지난달 23일 밴쿠버 목사회(회장 변상완 목사) 주최로 캐나다 밴쿠버 써리 크리스천스쿨에서 열린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 대회에서 시애틀 목사회가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친선 체육 대회는 서북미 지역 목회자들의 친선, 교류의 장으로 시애틀, 웨드럴웨이, 타코마 등 워싱턴 주 지역 목사회를 비롯해 오레곤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하는 한인교회 목회자가 매년 모이는 자리다.

이날 체육 대회에서는 시애틀 목사회가 단연 돋보였다. 시애틀 목사회는 실점과 실책에도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 다른 팀에 귀감이 됐고,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시애틀 목사회 배명현 목사는 “목회자 체육대회를 통해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들이 모두 만날 수 있어 정말 반갑고 좋았고, 특히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다”며 “이 기쁨과 힘을 가지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 더욱 헌신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서북미 지역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각 지역



선교한국 30주년 특별집회가 8일 저녁 세종대 대강홀에서 진행됐다. ©선교한국

그리스도 빠지면 본질 없는 선교운동 선교한국 30주년 특별집회 열려

2년마다 한국의 청년, 학생들에게 예수 제자의 삶과 선교를 도전해 온 선교한국 대회가 8월 8일 30주년을 맞이했다.

선교한국은 1988년 8월 8일 제1회 대회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회 대회까지 연인원 6만2,282명의 청년, 학생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했으며, 이 중 3만5,576명이 장단기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사역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 또한, 매년 대회 강의와 상담 등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국 선교사를 비롯하여 목회자, 신학자, 선교전문가 등 100~200여 명이 참여하여 청년, 학생 선교를 위해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어 왔다. 선교한국은 아시아와 기타 대륙의 청년, 학생들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학생선교동원 운동을 일으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8일 저녁 세종대 대강홀에서 열린 30주년 특별집회에서는 10여 곡에 이르는 역대 주제가 찬양과 퍼포먼스, 선교한국 운동의 역사 및 새로운 30년의 비전 보고, 헌약문 낭독 등의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리더십포커스 원장 이태웅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의미'(요 3:16-21)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

나 큰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모범을 좇아 살아야 한다"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영접기도와 이미 주님을 영접한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인도했다.

한미화 GBT 선교사는 '선교 현장, 현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본질 없는 선교운동"이라며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 큐티 동참, 선교도서 읽기, 복음 전하기, 국내 외국인 학생 및 이주인 사역 동참 등을 결단하는 헌신카드를 작성했다.

이지희 기자



명성교회

명성교회 재판국원 6인, 사임서 반려 통합 임원회, "세습 가능" 헌법위 해석 채택 않기로

명성교회 청빙 관련 재판 후 총회재판국 국원 6인이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8일 열린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임원회에서는 이를 반려했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15인 중 한재업·서광중·임재일·조원희 목사, 조건호·이의충 장로 등 6명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결의 유효' 판결이 나오자, "교단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회 임원회에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대 7로 결정된 재판에서 '결의 무효'로 표를 던졌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임원회에서는 헌법위 원회가 보고한 '현행법으로는 '은퇴한' 목회자의 세습을 제한할 수 없기에 세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고 논의 끝에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 임원들 중에는 목회자대물림금지법(일명 세습방지법) 제정 당시 헌법개정위원을 지냈던 2인이 포함돼 있어, 당시 입법 취지와 정신에 대한 공유가 있어왔다. 세습방지법에 대해서는 지난 101회기 당시 '법 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목회자 대물림)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신(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사상 등),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한편, 기독교불가회(CLF)는 최근 명성

교회 판결과 관련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들은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총회 헌법상의 세습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박사, 이하 장신대) 내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도 명성교회 청빙 관련 판결 결과를 비판하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판결일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죄악의 날이요, 세상에 대하여는 경솔국치에 버금가는 치욕의 날"이라며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결의한 헌법 제28조 6항을 버젓이 위배한 교회를 공교회의 이름으로 치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저들이 합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비양심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번 총회재판국의 치욕적인 판결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더 큰 과제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고무 격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0:00 밀실목사세브키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연합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하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앨버틴 온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남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훈**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7시(수) 재자서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A)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교회
새 사명을 입으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m.org



보고싶다! 공군 전우여!

**1961~1970년도에
수원, 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한 사병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락처 : 차수철(병144기)
(213)200-653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Email : mrjacob601@hotmail.com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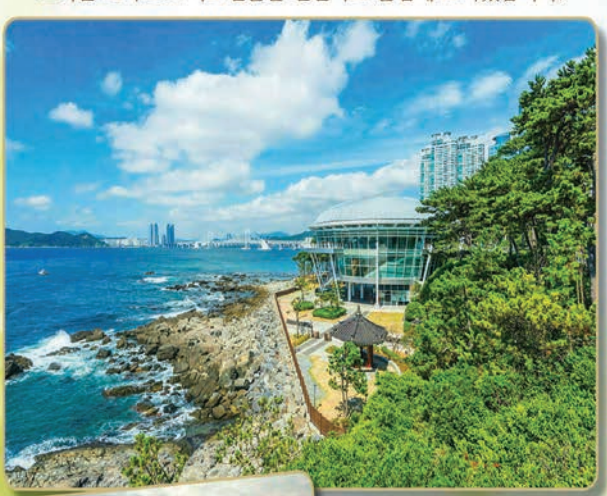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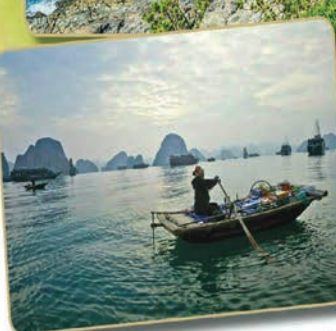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www.kaarp.org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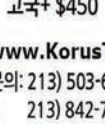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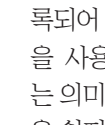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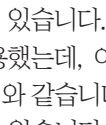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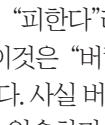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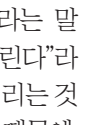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오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계사카
213) 842-7079 JAY LIM

로봇 룸바와 인류의 미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집에서 아내에게 가장 사랑받는 전자제품은 텔레비전이나 전자레인지가 아닙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보다도 “룸바”(roomba)라는 로봇을 더 좋아합니다. 아내는 그 녀석에게 “효녀 심청이”를 줄여서 “효심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청소 로봇 룸바는 매우 헌신적이어서, 소파, 책상, 침대, 가구 아래에 들어가 오락가락하며, 먼지도 지저분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기운이 다하면,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전원을 연결하고는 조용히 쉽니다. 계단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것을 보니 아직 자살 충동은 입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technology) 곧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이전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시간적 여유를 휴식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많은 것을 돕는데도 사람은 더욱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과학기술의 힘을 국방과 우주개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여러 나라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

도를 받지만, 북한의 핵은 아직 일정한 사찰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대륙간탄도탄(ICBM)까지 개발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벌이나 잡자리 같은 크기의 로봇 드론을 만들어 적의 동태를 관찰하거나 목표물에 앉아서 사격 표적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드러난 경쟁적인 무기개발은 15분 동안에 공중에서 지상까지 도착하는 방어 불가능한 무기, “신의 막대기”(rods of god)입니다. 그것은 친환경 우주무기로서, 1,000킬로미터 공중에 떠 있다가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가속되어 지상에 떨어집니다. 가속된 전봇대 크기의 텅스텐 막대기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적의 도시와 지하병거를 초토화시키지만, 오염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합리성을 사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학기술은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였으며, 지금도 지구를 망가뜨릴 정도로 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져 있고, 다른 신형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로 개발된 과학기술은 이제 인간의 파멸을 위한 불행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바 불의 심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곳은 죄가 없어지고, 물질이 새로워지며, 사람의 몸도 부활하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때에 파괴적 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동식물의 자연계가 조화를 이루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 아름다운 자연-문화의 회복을 누리면서 룸바나 더 고도로 발전된 룸바의 친척을 만나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평 모자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평에 모자를 씌우면 평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 사육장에 지분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설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평 부리에 모자, 혹은 플라스틱으로 된 평 안경을 씌운다고 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 아니라,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시야 차단용입니다. 이렇게 시야를 차단하면 평은 야생성이 억제되어, 날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평을 키우는 곳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평 모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언 29:18) 했습니다. 여기서 ‘목시’를 킹제임스 영어성경에서는 ‘vision’으로 풀이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뜻입니다. 비전은 앞을 내다보는 시야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앞을 내다보는 비전은 ‘계시’(revelation) ‘(NIV),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관을 비

전 센터로 이름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자라가는 그 현상은 미래를 향한 꿈이며, 하늘을 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제 5회 베델장학금수여식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비전 모멘트(vision moment)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과일헌금’을 해주신 결과 30명의 베델학생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었던 일은 미래를 향한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도록 도약판을 밟고 힘있게 뛰어 오르는 비전 모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평이 하늘을 보지 못하면, 하늘을 향해 나는 야성도 잃어버리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젊음의 정의는 도전입니다. 현실 적응이 아니라, 보이는 않는 미래를 비전으로 보는 것이 젊음의 야성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이미 젊음은 사라(젊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을 보도록, 시야를 가리는 모자를 벗겨주는 것이 신앙 교육이며 말씀 훈련입니다. 여기에 베델장학금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보도록 베델 온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응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머리에 쓴 모자 때문에 신앙의 야성을 잃어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직위를 얻게 될 때 우리는 흔히 감투를 썼다고 합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 쓰는 말인데, 감투가 특권, 안정 혹은 권리보장 등의 의미로 사용되면, 그 순간 우리는 야성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결코 감투일 수 없습니다. 그런 감투는 벗고, 하늘나라를 정조준하는 비전의 구원의 투구를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부터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를 극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지를 목숨걸고 방어하는 독일군은 기관총과 대포를, 상륙하는 미군들을 향해 소나기처럼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미군들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독일군 진지를 향해 일본 일본 전진해 갑니다.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속에서 전투는 진행됩니다. 그것이 싸움의 현장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현장. 그런 긴장감과 목숨을 건 전투적 상황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시각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디모데전서 6:11, 1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한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버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또는 집착하기 때문에, 또는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버려야 할 것을 붙들

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에 걸쳐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족은 사실 인구수에 있어서 그리 큰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족은 소수민족, 그리고 약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거대한 중국대륙을 뛰어넘어, 이슬람권, 그리고 유럽까지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소수이며, 약자로서 싸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두터운 갑옷, 긴창, 활, 화살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전투에 나설 때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몸

을 가볍게 하는 복장, 활과 화살, 그리고 가벼운 칼로 무장했습니다. 언뜻 그런 가벼운 복장으로 어떻게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가벼운 복장이 기동력을 증가시켜 중무장한 적군들을 쉽게 격파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겠노라고 자원을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 투구, 그리고 무거운 칼을 줬지만 다윗은 과감히 그것들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물뿔 몇 개를 취하며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치열한 싸움터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구분하는 군인은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법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검증되지 않은 방법, 욕심, 야망, 편안함에 대한 추구 등을 말합니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승리의 기쁨을 먼저 떠올린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짓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신간 도서

단숨에 읽는 천로역정

김홍만 | 생명의말씀사 | 120쪽

1678년 출간 이후 오늘날까지 성경 다 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기독교 고전인 <천로역정>은 한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하지만 풍유적 묘사가 가득하고 분량도 만만치 않아 끝까지 읽어내기 쉽지 않다. 이 책은 천로역정의 메시지를 읽기 쉽게 축약하고 한눈에 정리했다.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

오운철 | 두란노 | 264쪽

담배와 마리화나, 반복되는 학교 자퇴, 게임 중독, 정서 장애... 걷잡을 수 없던 아들의 탈선에 필사적으로 기도한 아버지의 이야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변화되는 원리가 들어있다. 자녀의 변화보다 먼저 아버지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단단한 교회

임중구 | DMI | 264쪽

<갈빈과 제네바 목사회>를 쓴 저자가 제자훈련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야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복음의 불모지들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장준식 | 아이러브처치 | 219쪽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절망과 좌절의 문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선물한다. 아름다운 필체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따뜻하게 채워준다. 저자는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Ph.D. 과정 중이다.



추천 도서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의 신행일치, 상충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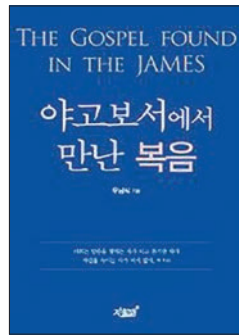
우남식 목사 <야고보서에서 만난 복음> 출간

최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의 이신칭의(以信稱義)가 신학계에서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가 강조될 때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신행일치(信行一致)다. 이에 우남식 목사가 야고보서를 통해 신행일치를 다룬 <야고보서에서 만난 복음>을 출간했다.

야고보서는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했던 책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의 신행일치 교리는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당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면,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믿음이 있다면 실천하라(2:14)"고 권고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믿음의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가 무디어져 믿음이 퇴보한 성도들에게, 훈계와 격려와 도전과 죄에 대한 깨우침과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서신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신앙이 삶 속에서 온전(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각종 문제들과 가정·개인에게 나타나 는 여러 위기들을 믿음의 인내와 온전함을 통해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에서 만난 복음 우남식 지식과감성 | 210쪽

총 5장 108절로 이뤄진 야고보서를 저자는 11장으로 나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장 끝마다 어울리는 찬송을 기재하고, 두 세 개의 질문을 담은 '생각하기'가 있어 적용을 돕는다. 무엇보다 각 장의 주제를 제목으로 삼고, 이를 사자성어로 요약, 표현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뇌리에 뚜렷이 각인시킨 부분이 인상적이다.

1장 '시련과 인내(1:1-8)'는 고진감래(苦盡甘來), 2장 '시련을 참는 자와 생명의 면류관(1:9-18)'은 전화위복(轉禍爲福), 3장 '말과 행동(1:19-27)'은 놀언민행(訥言敏行, 말은 더디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4장 '외모보다 내면(2:1-13)'은 외화내빈(外華內貧), 5장 '산 믿음과 죽은 믿음(2:14-26)'은 신행일치(信行一致) 등이다. 또 6장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한 자(3:1-18)'는 선행기연(先行其言, 자신의 말을 먼저 행하라), 7장 '겸손과 인내(4:1-10)'는 공신접수(躬身接水, 주전자의 물을 받으려면 잔을 낮춰야 한다), 8장 '비방과 자기 자랑(4:11-17)'은 구화지문(口禍之門, 입은 재앙의 문이다), 9장 '성도의 물질관

(5:1-5)'은 빙청옥결(冰清玉潔, 얼음같이 맑고 옥같이 깨끗하다), 10장 '소망 중에 인내(5:7-12)'는 인지위덕(忍之爲德, 참는 것이 덕이다), 11장 '고난의 때에 기도(5:13-20)'는 상부상조(相扶相助) 등이다.

칭의론과 관련, 현재 일부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한국교회 현 상황과 관련해 이신칭의를 '구원파적'이라고 비판하는 부류도 생겨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 "한국 교회의 위기 요인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변영신학의 영향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변영신학은 성경을 백지수표로 여기고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는 등 기독교를 '기복종교'로 전락시킨 만큼, 이제 우리는 순수복음 신앙,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과 사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역경을 감내해야 한다. 시련과 역경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다.

저자 우남식 목사는 총남대(B.A.)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M.Div. eq.), 인하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Ph.D.)를 이수했으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40여년 간 사역하며 많은 학생들을 회심시키고 선교사로 파송해 왔다. 국제신대 상담복지과 교수로서 해외부총장을 거쳐 현재 총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선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행복과 긍정 심리>, <성 심리> 등의 책도 썼다.

이대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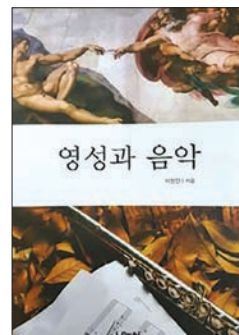
찬송가 98·203장의 작곡가 이천진 목사의 영성과 음악

찬송가 98장과 203장의 작곡자인 한양대학교 교목실장 이천진 목사가 책 「이천진 목사가 쉽게 쓴 찬송가 이야기」(신앙과 지성사)에 이어 「영성과 음악」(나눔사)을 출간했다.

저자는 인간이 어떻게 신(神)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과제 중 하나는 신을 만나는 것이고 신을 만나는 통로 중 하나는 음악이다. 음악은 신에게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스바냐 3:17)"

저자는 "최초로 노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음악은 신을 만나는 영성"이라며 "피타고라스는 <천구의 음악 이론>(The Music of the Spheres)을 통하여 신은 우주를



영성과 음악 이천진 나눔사 | 201쪽

창조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창조했기에 음악을 인간이 신을 만나는 영성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음악은 천상에서 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음악은 신을 만나는 영성"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저자는 피타고라스, 플라톤, 유대인들의 찬송, 그레고리오 성가, 루터의 코랄, 21세기 찬송가, 한국 신학(윤성범, 유동식, 김광식)과 한국음악 등 철학과 신학, 음악을 오가며 깊이 분석하고 음악이 신을 만나는 영성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 이천진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웨슬리신학대학원(Wesley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 학위(Doctor of Ministry)를 받았다. 이화미디어고등학교 교목으로 학원 선교를 하다가 중교교회와 궁정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바 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교목실장과 한양대학교교회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찬송가 작곡과 한국찬송가의 신학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고, 21세기 찬송가 98장과 203장, 그리고 CCM "좋은 사람"의 작곡자이다.

김진영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단기간에 의한 맞춤형 피팅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 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 SMOG •INSPECTION
- TUNE-UP •BRAKE
-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산성 3.5 6.0 7.0 8.5 9.0 9.5 알칼리성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솔로몬 채석장 내 시드기야 동굴의 입구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안장된 건물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85)

솔로몬 채석장과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

성전을 건축할 돌을 채석한 곳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윗의 꿈은 피비린내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그의 또 다른 부정한 피의 상징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 성전 건축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솔로몬은 재위 4년(주전 966년) 2월부터 11년(주전 960년) 8월에 이르는 6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였다.(왕상6:7, 37)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채석장에서 다듬었고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다.(왕상6:7) 그럼 그 돌을 뜨는 곳이 어디였는가? 이것이 옛날에는 참 궁금하였다.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한 1995년 나는 드디어 그 비밀의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바로 예루살렘 북쪽 중간에 있던 세계 문 옆에 있는 성벽 밑에서 '솔로몬의 채석장'이라는 곳

을 발견한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채석장이었던 이곳은 후일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에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때 마지막 유대 왕 시드기야(Zedekiah)가 동굴을 통하여 성전에서부터 여러고로 탈출하려다 잡힌 곳이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내가 처음 방문하였던 1995년에는 이곳을 잘 아는 이가 없었다. 그래도 입구가 있었고 입장료를 받고 출입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이곳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웠다. 일단 조명 장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마치 동굴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으스스함이 있었다. 이 동굴의 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하기도 하였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성전과 자기 궁을 만들 수 있었나 하는 의문도 풀렸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비사도 들으면서 유대의 비극과 아픔을 느껴보기도 하였다. 가장 신기하였던 것은 이

동굴의 크기가 축구장 3배 이상이라는 것과 이 동굴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동굴 위는 지금도 3만 명 이상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당시에 들었다. 물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석공연합 단체의 비밀모임이 20세기 초까지 이곳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곳은 채석장이고 프리메이슨은 석공조합이니 가능한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당시 그 동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였다. 그 후 필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였지만 찾아오는 이가 없어 폐쇄되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비밀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 최근 2012년 11월에 새로운 출입문을 내고 이곳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꼭 다시 찾아가고 싶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의 무덤

감람산이나 히브리대학에서 보면 옛날 예루살렘이라는 옛 성은 잘 내려다 보이지만 예루살렘은 잘 볼 수가 없다. 예루살렘 남쪽에 길로라는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의 남부 지역이 잘 보인다. 그러나 역시 현

대 예루살렘을 가장 넓게 잘 볼 수 있는 곳은 나비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사무엘 선지자 무덤이 있는 언덕이다. 텔아비브 쪽에서 구 도로를 타고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 '기브온' 쪽으로 가파르게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한 눈에 보이는 이 언덕에 다다른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이 언덕을 점령하여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하여 '조이 힐(Hill of joy, 기쁨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며 백성들의 지도자였다. 그의 생애동안 파란만장한 일이 많았지만 아마도 사울과 다윗을 기뻐하여 왕으로 세운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다.(삼상11:12-15, 삼상16:1-13 참조)

사무엘은 때가 되며 모든 일을 마치고 죽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집인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였다. 라마는 이곳 기브온에서 약 10리쯤 떨어져 있는 곳이다. 아마 사무엘은 라마에 매장되었다가 후일에 이곳으로 옮겨왔으리라 본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서북쪽으로 약 7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 신전이 있던 곳이다. 여호수아와 현 지인들이 평화 협정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다.(수9:3-27)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선 곳이기도 하다.(수10:12)

솔로몬은 왕이 된 후 혁혁한 업적을 나타내지만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왕상3:4, 3:12, 대하1장 참조)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법계가 실로에서 블레셋 지경으로 그리고 '기랴트야림'에 머물러 있어서 아마도 산당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제사를 통하여 그는 지혜의 왕으로 후대에 길이 빛나는 훌륭한 왕이 된다.

솔로몬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곳이 바로 이곳 사무엘 선지자 무덤이 있는 언덕이다. 지금도 이 산에 올라보면 명당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겠다. 비잔틴 시대의 여러 구조물들이 산당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고고학적 공원 중에 하나이지만 찾는 이가 거의 없어 버려진 유적지이다.

사무엘 선지자 무덤은 모스크같이 생긴 건물의 지하에 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키면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건물의 2층 지붕으로 올라가면 서쪽으로 세펠라 평지를, 남쪽으로 예루살렘, 동편으로 유대광야를, 북으로 아얄론 골짜기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원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가끔 이 산당에 올라 아얄론 골짜기를 보며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태양이 기브온 위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렀던 사건들을 추억하며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빠지지 않는다. 사무엘은 갔지만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구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역사의 인물들을 돌아보며 역사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여야 할 것이다. <끝>



사무엘 선지자 무덤에서 내려다보는 전경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6월 21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213-272-6031

“신학교 무너지면 그 다음은 교단과 교회”

제1회 신학과 윤리 포럼, 동성애 문제 다뤄

제1회 신학과 윤리 포럼이 '동성애'에 있어 신학의 이단 규명과 장신대 교육지침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8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사범대 정보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윤리재단과 한국개혁신학회,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이윤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어제 NAP(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가 통과됐다. 이제 나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장기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주일 공과에서 성경적 성 윤리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꼭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장신대 문제가 심각하다. 장신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며 “유럽과 북미의 순서를 보면, 신학이 먼저 무너졌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단에 영향을 줬다.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동성애 안수 교단이 없지만, 정권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함께 막아야 한다. 장신대의 경우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고, 학생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장신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강연에서는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과 이상원 박사(총신대)가 발표했다. 먼저 '동성애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은 이단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영한 박사는 “동성애 이슈는 단지 윤리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이라며 “특히 퀴어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설적으로 해석하고, 예수 부활마저 '퀴어 성해방의 소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한 박사는 “퀴어 신학은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예수를 동성애자로 보면서 기독교를 '동성애교'로 만들고 있다”며 “그러므로 동성애를 '언약의 무지개'로 본 '장신대 무지개 채플' 사태는 심각한 이단적 행사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퀴어 신학은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이라고 전했다. 김 박사는 “퀴어 신학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허용한 것으로 보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할 필요 없이 천국에 간다는 '동성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장신대 교수회가 발표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은 동성애 문제의 본



김영한 박사

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 장신대,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개인 차원에서 접근

이상원 박사는 '장신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교육지침에는 동성애 논쟁으로 촉발된 곤혹스러운 입장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교수들의 고민의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육지침은 현재 동성애 논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동성애 반대운동을 간접 비판하면서 이 운동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먼저 “교육지침은 동성애 문제를 개인윤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를 구분하면서 동성애 행위만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보편적으로 영위해야 할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요약하면 동성애자 개인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동성애자 개인을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모든 서울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동성애·동성혼 반대운동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개인 윤리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 행위가 동성애자 자신과 시민들의 보건 위생에 미치는 악영향 △동성애·동성혼 합법화가 초래한 구조와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동성애·동성혼을 용납할 경우 필연적으로 찾아올 정체성 상실 △2년전간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 온 기독교 교리 체계를 성(gender) 관점에서 독신적(blasphemous)으로 재해석한 퀴어 신학(Queer Theory)

에 의해 훼손되는 정통 기독교 교리 △퀴어 신학이 성도들에게 끼칠 악영향 등 사회윤리적 구조 환경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박사는 “퀴어 신학은 정통 신학이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간주해 온 동성애와 동성혼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다. 그런데 이 재해석은 교리적 주제들이 담은, 영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다양한 함의들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주제들을 자의적·외설적으로 왜곡시킨 독신적(續神的) 해석들”이라며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해석 변화는 동성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본문들이나 동성애와 상관 없는 본문들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재해석, 성경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동성애를 죄로 비판하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교육지침은 '서둘러 정답을 말하고 상황을 정리하려 한다'는 말로써 현재 전개되는 동성애·동성혼 운동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으나, 의과학적 차원에서 동성애 행위의 성질과 보건의료적 후유증 파악은 기초적 의과학적 상식만 있으면 자명하게 파악되는 것”이라며 “진동성애 진영은 일찍이 인권보다 지침으로 동성애에 대한 모든 부정적 보도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지난 10년 이상 집요하게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이러한 사회 구조 변혁운동을 방지할 경우 정통 교회의 교리와 설교는 크게 위축되거나 조물거리가 되고, 통제할 수 없는 성윤리 혼란이 초래되며, 보건 의료적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크게 탄압받으며, 나아가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설교와 교육을 실시할 자유와 직분 임명의 자유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



이상원 박사

이라며 “장신대의 교육지침은 이런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성애 행위만 죄이고, 성적 취향은 괜찮다?

이상원 박사는 “교육지침은 동성애와 관련해 '외적 행동'만을 죄로 여기는데, 이 말은 개인의 성적 취향은 죄와 관련이 없고, 동시에 동성애적 성향의 선천성·후천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죄의 범주를 외적 행동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닌 것이 되고,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 경우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데, 첫째로 선천성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성향이므로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둘째로 동성애 행위가 죄라고 말하면서 그 근원이 되는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들게 된다”며 “따라서 동성애 성향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성애 행동이 죄라고 해선 안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동성애 진영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임을 의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사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지침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영위해야 할 권리들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진동성애 진영에서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보편적 인권에 속한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교육지침은 보편적 인권이 진동성애 진영이 주장하는 항목들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시행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동성애 비판 발언을 혐오로 간주해 하

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달라는 것이며, 교회나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직분이나 직책을 맡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건전한 모든 신학적·윤리적·의과학적·보건의료적 평가 자체를 금지해, 국민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국민들 전체의 건강한 성윤리 질서를 세우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를 수반하므로, 보편적 인권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성경적 근거 인용'에 대해 전했다. 그는 “교육지침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 요한복음 8장 1-11절 말씀을 전거로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를 죄죄하지 말 것, 참회와 변화를 위한 인내, 함께함, 사랑, 동성애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요청한다”며 “이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자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있고, 본문에 여인이 회개했다는 언명도 없으므로, 근거 본문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대응을 적절하게 다룬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다룬 고린도전서 5장 1-8절”이라며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범한 자들에 대해 교회 회중과의 교제를 당분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다. 죄악 된 본성을 죽이고,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이승구 박사(합동신대)가 '장신대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에 대한 논의', 광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신학포럼)가 '여성신학자가 바라본 퀴어신학의 이단성 문제', 김성환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가 '18개 교단 임보라 이단성 보고서'를 각각 발표했으며, 권요한 박사(서울대 학원선교사)가 논평 및 토론을 맡았다. 이대웅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성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감정 아닌 의지적 결단으로 찬양하는 것이 믿음”

예수마을교회 정인호 목사의 새벽강단

LA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정인호 담임목사)는 새벽예배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예수마을교회는 차세대와 아이들에게 대한 비전으로 가득한 교회다. 정인호 목사 가정으로 시작한 예수마을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차세대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2018년 7월에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개최한 VBS에서는 아이들 50여 명을 섬기기 위해 교사와 스텝만 40여 명이 봉사했다. 예수마을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비전 없이는 이민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목회 철학에서다. 예수마을교회는 수요일 오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엘에이 목회자 모임도 갖고 있다. 교단을 초월해 친교와 설교, 목회의 경험을 나누고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모임이다.

예수마을교회는 지난 13일 토요일 새벽 시편 34편을 묵상했다. 이날 새벽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정인호 목사는 “고난과 환란이 있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면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설교 요약.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삼상 21장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진영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군사를 풀어 죽이려 하니 적국의 땅까지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왕은 아기스인데 오늘 시편은 아비멜렉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고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사람이 화나고 억울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자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갈 곳이 없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하는 이 다윗의 현실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이렇듯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비멜렉 왕에서 쫓겨난 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기가 막힌 고난과 환란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방식은 정말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 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 두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 상황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항상 주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견딜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신앙의 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깊은 우물에서는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밤이 가장 깊은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고난이 항상 유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현실이 아닌,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는 현실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더 좋은 길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34: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시34: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건강함과 부유함, 성

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높이기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해달라고, 부유함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기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유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하소서, 아픔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기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시34: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할 때 우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힘들 때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가식이 아닙니다. 100퍼센트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지 않아도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력은 가식이 아닌 신앙적 의지이며 노력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퉁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감정에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미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울퉁은 믿음을 가지고 의지로 찬송하고 높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시34: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맛, 기도의 맛을 봐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인호 목사

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하나님과의 긴밀함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34: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원리가 이기지만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데 언제 좋은 세월이 온다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34:17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의 특징은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시34:18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회개

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34: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일지라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시34:20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노래한 시가 아니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과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기고 감정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 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 생각하고 우리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노래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상황이 극복될 것입니다.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JEONG & LIKENS는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상법/민사

- 물품/서비스 거래 계약 위반
- 채권/채무/파산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비즈니스 파트너 간 소송
- Non-profit 협회 관련 소송
- 장애자법(ADA) 관련 소송
- 비즈니스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지적재산권

- 디자인 등 저작권 등록
- 의류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영화, 음악, 방송 관련 저작권 소송
- 상표권 등록 관련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

노동법

- 고용계약서/직원핸드북 작성
-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소송
- 차별, 보복 행위 관련 소송
- 부당해고 관련 소송

부동산/건설

- 부동산 매매/에스크로 관련 분쟁
- 비즈니스 매매 관련 소송
- 커머셜 리스 관련 분쟁
- 은행과 커머셜론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분쟁
- Mechanics lien/stop notice 관련 소송

- 다수의 대형 로펌 상대 소송 승소
- 미주류 대형기업을 상대로한 다수의 승소 경험
 - 1)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성공적 방어**
 - 2) 대형 언론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성공적 방어**
 - 3) 미 대형 군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4) 대형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5)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6) 10년이 지난 전문가 업무상 과실 사건, 공소시효문제 해결하여 **승소**
- 수입 거부된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리한 소송 **이례적 승소로 해결**
- 지적 재산권, 부동산, 채권추심, 건설, 노동법 등 관련 다수의 상법 소송 승소
- 중소기업중앙회, 한인의류협회, 한인부동산협회 및 다수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i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Tel. 213.688.2001

1055 W. 7th Street, Suite 2280
Los Angeles, CA 90017

J&L JEONG & LIKENS, L.C.
www.jeonglikens.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인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